



제 18호 22.08.05.(금) 발행

# JBC HANOI 뉴스레터

전라북도 1호 해외통상거점센터(베트남)

JBC HANOI

## 베트남 HOT ISSUE

### 베트남, 산업현장 노동력 부족 여전

베트남 산업현장 전반의 인력난이 여전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치르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인력 확보를 위해 상시적 채용공고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부 하이퐁시(Hai Phong) 애플 협력업체 페가트론(Pegatron)은 직원 채용을 위해 '작업장 에어컨 완비, 무료 통근버스 운행, 복리후생' 등의 조건을 걸고 관리자와 기술직군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 페가트론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 수준은 대략적으로 900만~1300만동(385~556달러) 수준에 이른다.

또 다른 애플 협력업체 고어텍(Goertek)의 베트남법인 고어텍비나(Goretek Vina)는 구매 및 무역 관리직, 고객서비스 직원, 생산직군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통계를 보면 남부 롱안성(Long An) 통허우산업단지(Long Hau) 입주기업들은 상반기 채용 규모를 전년 동기대비 30~40%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 베트남 FDI 유치, 투자유치액 절반이상이 제조·가공업에

베트남 제조·가공업 부문은 2,520억 달러(전체 FDI의 약 60%)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했다. 베트남 제조·가공업 부문은 풍부한 노동력, 정치적 안정성, 다수의 무역협정 가입 이점으로 많은 투자액을 유치했으며, 주요 투자 기업은 삼성, LG, 혼다(Honda), 도요타(Toyota) 등이다. 특히 한국의 삼성 그룹은 베트남의 박닌(Bac Ninh), 하노이(Ha Noi), 타이응우옌(Thai Nguyen), 호치민시(Ho Chi Minh) 등 여려 지역 투자했다.

올해 상반기 통계에서 베트남은 총 160.3억 달러의 FDI 투자액을 유치했으며 이 중 제조·가공업 투자액은 88.4억 달러로 전체의 63%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은 여러 베트남 투자국 중 가장 많은 FDI 투자액을 기록했으며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투자부문은 제조·가공업(74%)이며, 이어 부동산(13.1%), 건설업(3.8%) 순으로 많다.

출처 : 한국사회복지저널(<http://www.ksw-news.com>)





## 베트남 HOT ISSUE

### 베트남, 1억 인구중 70%가 생산가능인구

베트남 인구 약 1억명(2019년 조사 9620만명) 가운데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70%에 이르며, 이런 황금 인구 구조는 앞으로 30~4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대 수명에 못 미치는 건강 수명, 성비불균형, 지역간 출산율 격차 등 해결 과제도 많은 것이 지적되고 있으며 유엔(UN)은 베트남이 지난 60년간 성공적인 인구 계획을 통해 합리적인 인구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 15년간은 대체출산율(현재 인구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 유지하여 왔었다고 평가 했다.

이같은 훌륭한 성과에 불구하고 인구증가와 노동인구 수는 기회와 도전에 동시에 직면 해있다. 도농간 출산율 격차, 성비불균형, 기대 수명과 건강수명과의 괴리 등 선진국들도 밟아온 문제가 향후 질적·양적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 베트남 최대 하노이 속선폐기물발전소 가동 시작

베트남 최대 폐기물 발전소 하노이 속선폐기물발전소(Soc Son) 1호기가 25일 가동을 시작했다. 하노이시 속선현 남선폐기물처리단지(Nam Son)에 세워진 속선 발전소는 하루 최대 4000톤의 건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발전소측은 향후 소각로 5기와 발전기 3기가 모두 가동되면 발전용량은 75MW에 이르게 된다고 발표했다. 생산한 전력의 15~20%는 발전소에서 자체 사용하고 나머지 생산량은 베트남 전력 공사(EVN)에 판매할 예정이다.

리 께(Li Ke) 속선발전소 부사장에 따르면, 소각로 1기는 하노이시의 하루 폐기물 배출 7000톤중 1000톤을 태울 수 있다. 또한 소각로는 폐기물 분류가 필요치 않은 벨기에 표준기술이 적용됐지만, 최근 베트남의 생활 폐기물 분리 배출의 의무화 따라 발전 효율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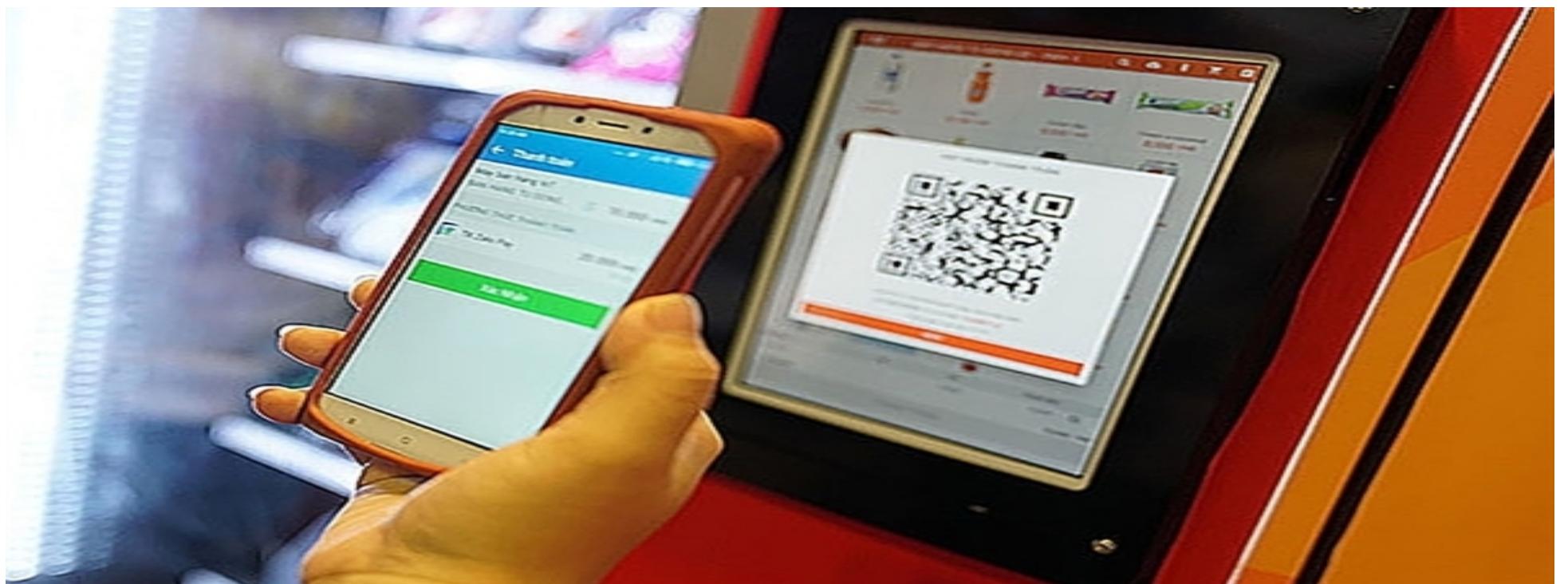
## 베트남 유망산업/트렌드 향후 2년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베트남 핀테크 시장

금융지주사인 로보캐시그룹(Robocash Group)에 따르면 2016년 7억달러 규모의 베트남 핀테크시장은 현재 45억달러로 커졌으며, 이르면 2024년 18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베트남은 역내국가 가운데 싱가포르 다음으로 핀테크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가 큰 국가로, 전체 벤처투자중 93%가 전자지갑 및 전자결제에 집중 되어 있다. 현재 핀테크기업수는 97개로 5년전보다 85% 증가했다. 그러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2016년 이후로 매년 11개씩 창업되던 핀테크기업은 2개로 줄었다. 핀테크시장 거래량은 2016년 이후 152.8% 증가했으며, 이 기간 신규 사용자수는 2950 만명이 늘었다.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인들은 최소 1개 이상의 핀테크서비스를 사용중이며, 특히 ▲온라인거래 ▲전자결제 ▲전자지갑 부문의 서비스 수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보캐시그룹은 베트남인들의 높은 핀테크 수요와 함께 정부가 핀테크를 비롯한 금융기술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들을 근거로, 베트남 핀테크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 베트남 유망산업/트렌드

### 동남아 에듀테크 시장의 떠오르는 별, 베트남

#### 세계에듀테크시장현황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에듀테크(Edutech 또는 Edtech)는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에듀테크를 이용한다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하여 문제 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 데이터를 취합하여 학습자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등의 1:1 맞춤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에듀테크 분야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잠재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아리즈톤(Arizton)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에듀테크 시장은 2548억 달러 규모에 달했으며, 이후 6년간 연평균 15.52% 성장해 2027년에는 시장 규모가 605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코로나19로 한층 더 빨라진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에듀테크는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은 에듀테크 기술 분야의 가장 큰 잠재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선 동남아시아의 인구는 6억7500만 명에 달하며, 대부분의 국가가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디지털 기기 이용에 익숙하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 부모들은 자녀 교육열이 대체로 높은 편이라 교육비를 아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베트남은 가장 유망한 에듀테크 시장 중 하나로서 베트남의 에듀테크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베트남에듀테크분야의발전단계

베트남의 에듀테크 분야는 2000년에 태동했다고 볼 수 있다. 2000~2004년 학교 및 대학교 등에서 온라인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베트남 에듀테크의 시초다. 2기는 베트남에 흑마이(Hocmai), 토피카(Topica)등의 온라인 학습 서비스 상품이 등장한 때로 2006~2008년에 해당한다. 3기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양한 온라인 학습 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가 등장한 시기이며, 4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로 온라인 학습에 사용하는 월 지출액이 상당히 증가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는 5기로 분류되며 교실이나 강의실에서 진행되던 수업이 온라인으로 완전히 대체되면서 진정한 에듀테크 및 이러닝 서비스의 전환기를 겪고 있다.

#### 베트남에듀테크시장의성장요인

2022년 이후로 베트남 에듀테크 관련 스타트업 분야에 더 많은 해외 자본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성장 요인은 경제 성장으로 자녀 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인은 베트남의 인구구조에 있다. 위아소셜(We are social)의 2022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9856만 명에 육박하는 베트남 인구 중 44세 미만 인구의 비중은 68.4%에 달한다. 또한 베트남의 16세에서 64세 인구 기준 스마트폰 보급률은 97.6%, 인터넷 보급률은 73.2%에 달한다. 미디어와 모바일앱에 익숙한 MZ세대 사이에서 점차 저비용 고효율의 에듀테크 앱에 대한 이용도 늘어나고 있어 관련 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베트남 유망산업/트렌드

### 베트남에듀테크생태계

2021년 기준 베트남에 등록된 국내외 에듀테크 관련 기업(스타트업 포함)은 179개사이다. 이 중에는 현지 토종 스타트업 외에 베트남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에서 진출한 스타트업 스냅애스크(snapsk), 듀오링고(duolingo), 엘사(ELSA), 퀴즐렛(Quizlet), 무들(moodle) 등도 포함된다.



Figure: Vietnam's EdTech Landscape 2021  
Source: TechAsia, EdTech Vietnam Yearbook 2021  
[자료: NEXTRANS, Vienam Edtech Report (2021)]

### 베트남 에듀테크 시장진출 방안

베트남 에듀테크 시장에 진출 시 법인 설립 전 현지 규정과 규제 환경 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듀테크는 새로운 영역으로서 베트남 법률 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법적 프레임에서 여전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있다. 에듀테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률에는 투자법, 교육법, 상법 및 특정 활동을 규제하는 여러 법령 및 규정이 포함된다. 베트남 정부는 에듀테크라는 신규 사업영역을 법적 프레임 안에서 규제하기 위해 이러닝 활동에 대한 통합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규칙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 시사점

베트남은 높은 교육열과 타 아세안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IT 인프라는 전 세계 IT 인력과 투자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젊은 인구 비율이 높고 인터넷 보급률 및 무선통신기기 보급률이 70%에 육박하는 베트남은 IT 인프라가 경쟁 국가 대비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에듀테크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분석한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전환 우선사업으로 교육 분야가 선정되면서 정부와 민간 분야 모두 에듀테크 사업이 중점적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베트남 에듀테크 시장에서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는 많다. 에듀테크에 대한 많은 투자자의 관심과는 달리 아직까지 베트남에서 에듀테크가 일반적인 교육 수단으로 여겨지진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이 크게 보급되긴 했으나 베트남 학부모 및 학생들은 여전히 대면교육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 위주인 에듀테크 서비스 기업이 대면교육의 이점을 뛰어넘는 기술과 플랫폼, 이용방식을 개발해야 대면교육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 베트남 경제·금융 소식

### 베트남수출, 올해사상처음 4000억달러 달성전망

베트남은 올 들어 기업들의 생산이 재개되면서 주문이 몰리고 FTA(자유무역협정)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출이 사상 처음 4000억달러를 달성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통계총국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액은 186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했다. 수출액이 10억달러를 넘는 품목은 28개에 달했고, 업종별로 전자, 섬유의류, 신발 등은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주문을 다 채울 정도로 업황이 좋다.

상반기 결과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주요 수출시장과 체결한 FTA의 효과적 활용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고 있는 중국(7.2%↑)을 제외하면 상반기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한국,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으로의 수출은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달러매각에 나선 베트남 중앙은행

베트남 중앙 은행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유 달러의 매도를 더욱 늘릴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베트남은 최근 달러 강세가 지속되자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에 외화 공급을 위한 보유 달러의 매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앙 은행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16일 미국 연준(Fed)이 금년 들어 3번째 금리 인상을 28년 만에 최대폭인 0.75%포인트 인상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화는 이러한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일정 국가들의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측정하는 미국 달러 지수가 연초에 비해 10% 상승했다. 그러나 꽝 부국장은 베트남 통화 동(VND)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미 달러화에 대해 2%정도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베트남 통화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아세안 데일리(<http://www.aseandaily.co.kr/>)

